



“남들은 서로 만나지 못할 슬픈 사연을 지녔다고 혀를 차지만 그게 아닌데 만나지 못한 게 아닌데 당신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 붉은 꽃으로 피었을 뿐인데.”  
▲장혜경 작 ‘꽃무릇’

◀조병연 작 ‘꽃무릇’

## 남편은 꽃을 그리고 아내는 시를 입힌다

### 갤러리 결혼식 화가 조병연·시인 장혜경씨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조병연(왼쪽)·장혜경 부부가 두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 2010년 김남주 문학제서 첫 만남

### 그림과 시, 서로의 작품활동 도움

### 31일까지 아트갤러리 ‘행복한 동행’ 전

빨간 꽃잎 아래 하얀 나비 한쌍이 정겹게 날고 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를 다독이는 나비의 날개짓은 사랑이 그윽하다.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아트타운갤러리, 하얀 나비 그림이 걸린 이곳에서 결혼식이 진행됐다.

주인공은 오는 31일까지 ‘행복한 동행’전을 개최하는 화가 조병연(52)씨와 시인 장혜경(여·51)씨. 개량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둘은 주례 김준태 시인과 지인들 앞에서 영원히 서로를 아껴줄 것을 맹세했다.

인생의 절반을 남긴 시점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사실 첫번째 결혼이 아니다. 조씨와 장씨는 각각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10여년 이상을 외롭게 지낸 상처가 있다.

둘이 처음 만난 건 지난 2010년 해남 ‘김남주 문학제’에서였다. 목포에 거주하는 조씨는 시화(詩畵) 작품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목포작가회의’ 회원들과 방문했고 광주에 사는 장씨는 시인으로서 행사에 참여했다. 당시 그들은 서로 소개를 받고 좋은 감정을 느꼈지만 인사만 한채 그대로 돌아갔다.

관계가 가까워진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4년 목포에서 열린 ‘김현 문학제’다. 2010년 이후로 만났던 적이 없었던 둘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단박에 알아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조씨는 장씨를 기차역까지 바래다 준다고 나섰고 헤어지기 아쉬워 술 한잔을 권유했다. 조씨가 싫지 않았던 장씨는 흔쾌히 응낙했고 둘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 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구나 싶었죠. 혼자라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조병연)

“예전부터 그림을 좋아했는데 화가라는 말을 듣고 끌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맑은 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장혜경)

전혀 장르가 다른 화가와 시인이 만났으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조씨는 “텔레야 뭘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장씨도 조씨의 그림이 작품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혔다.

장씨는 “조지훈의 ‘낙화’ 처럼 시는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갤러리를 다니면서 그림을 소재로 시를 구상하곤 했는데 이제는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웃음지었다.

반대로 장씨도 조씨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미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조씨가 화풍을 바꾼

것. 먹과 황토색만 사용하며 남도풍경을 그렸던 그가 꽃 등을 소재로 삼으며 채색을 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내가 꽃을 좋아해서다.

“화가에게 화풍이란 생명과도 같아요. 저는 사랑을 위해 생명을 버렸죠. 아니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한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말할게요. 아내를 위해 좋아하던 술도 지금은 조금만 마셔요.”(조병연)

이번에 전시된 작품에서는 장씨의 향기가 많이 난다. 메뚜기, 까치, 나비 등 동물 두마리가 등장하는 작품이 많다. 또 예전에는 미항사를 그리던 작품명을 ‘미항사’로 하는 등 단순하게 명제를 붙였는데 최근에는 ‘사랑’, ‘동행’, ‘희소식’ 등 추상적인 표현도 사용한다. 달밤 한적한 시골집을 그린 ‘효월대상랑’은 아내가 시상을 발췌해 작품명을 붙였다. 아예 아



‘몽강리의 봄’

내를 등장시킨 작품도 있다. ‘몽강리의 봄’ 속 자전 거 타는 여인은 평소 자전거타기를 좋아하는 장씨가 모티브다.

이번 전시 팸플릿에는 그림에 어울리는 장씨의 시도 실었다. 그림 ‘꽃 무릇’에 영감을 준 시 ‘꽃 무릇’을 비롯해 ‘연꽃’, ‘수선화 앞에서’, ‘청풍명월’, ‘분꽃 피는 저녁’, ‘무등산’ 등이다. 부부는 앞으로 같은 소재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시화전도 열 계획이다.

서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두 부부에게 소박한 꿈이 있다. 훗날 시골로 내려가 조그만 미술관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자는데 동의했다.

“다행히 우리 둘다 복잡한 도시보다는 여유로운 시골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함께 만드는 시화전도 기대해주세요. 한 작품 안에서 그림과 시를 모두 보여줄 생각이에요. 이제 부부가 됐다”고 정식으로 알렸으니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사랑하고 아껴줄 생각이예요.”(조병연, 장혜경)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생애 그 너머...낙원·극락·환희

### ‘하람’ 회원전...21일~23일 갤러리 D

광주 문화예술 애호가 모임 ‘하람’(대표 서재숙)이 21일부터 23일까지 갤러리 D에서 회원전 ‘생애 그 너머’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1월 관람객 1000여 명이 찾았던 첫 회원전의 앵글 전시다.

회원 11명이 참여하는 ‘생애 그 너머’전은 삶에 대한 인식을 죽음과 연결시켜 세 가지 주제로 담아낸다. 인생이라는 걸 없는 여정에 대해 보여주는 ‘삶의 여정’, 산 자와 죽은 자의 엄숙한 상례를 보여주는 ‘생과 사’, 생명의 원천이자 영원한 무형의 실체인 영혼의 세계를 표현한 ‘죽음 후’ 등이다. 세 가지 주제는 회화, 조각,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된다. 특히 기독교와 불교, 도교, 이슬람교를 비롯해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이집트의 사후세계, 티베트의 천장(天葬) 등 다양한 종교적 사후세계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풀어냈다.

김인해 작가의 작품 ‘낙원’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기독교의 천국 모습을 표현했다.

박애순 작가는 깨달음을 통해 정신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인 불교 낙원 ‘극락’을 작품에 담았고 서재숙 작가는 이슬람 천국을 표현한 ‘환희’를 선보인다.



서재숙 작 ‘환희’

또 티베트 불교 장례 문화인 천장(天葬)의 모습을 담은 영상 작품 ‘하늘로 가는 길’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행사에서 호응을 받았던 ‘관 체험’과 ‘묘비명 쓰기 프로그램’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유건우)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출연진은 김연지(수완초 5년), 송민정(전주예고 1년), 박은서(서강고 1년), 류소희(순천대 1년), 박수민(성신여대 1년), 오혁진(운남고 2년), 박인하(전주예고 1년)씨다.

연주 곡목은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9번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1번, 멘



유건우 예술감독

델스존 피아노협주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3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 등이다.

지휘를 맡은 유건우씨는 전남대와 독일 쾰른 대학 등에서 수학했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을 역임했다. 티켓 전석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

## 박수근·이중섭 작가 전작도록 만든다

### 문체부 위작 논란 차단 나서

최근 미술작품을 둘러싼 위작 논란이 빈번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전작도록을 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수근, 이중섭 작가의 전작도록을 만든다고 19일 밝혔다. 전작도록은 작가의 모든 작품에 대한

연대, 크기, 상태, 이력, 소장처 변동, 비평, 전시 기록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해당 작가의 작품 감정 및 거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원로 작가인 박서보, 이승택, 최만린의 디지털 자료집도 제작한다. 또 오는 3월 공모를 통해 디지털 자료집을 제작할 작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jtb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10월 심리교과제 이벤트 진행중

##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증형 상품안내 (100%취 환)**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 에스투어

해외골프투어

###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 “총 50박 무료!!”

동남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small>불포함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small>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가 금액은 VAT포함 금액

## 문의전화 062-415-8811

**지 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경 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 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 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 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 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